

# 근거중심 문헌정보실무의 내용과 방법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tent and Methodology of Evidence-Based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

표순희(Soon-Hee Pyo)\*\*

### 초 록

본 연구는 근거중심 문헌정보실무의 개념과 연구방법 및 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되었다. 근거중심 문헌정보실무는 실무에서 문제해결과 업무수행 향상을 위해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연구와 실무 간에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격차를 줄이기 위한 운동이다. 근거중심 문헌정보실무는 초기에 의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나 점차로 대학, 전문, 학교도서관으로 확대되었으며 연구 주제 또한 이용자연구, 평가에 한정되었던 것이 경영, 장서, 서비스 등 도서관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근거중심 문헌정보실무의 수행은 특정한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 결과의 검색, 선정, 평가, 활용의 과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가장 높은 수준의 연구결과인 비평적 리뷰의 생산과정을 정형화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체계적인 평가를 수행함과 동시에 새로운 연구통합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the evidence-based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EBLIP) in Korean librarianship with analysis of concepts and research method on EBLIP. EBLIP seeks to improve library practice by utilising the best available evidence in conjunction with a pragmatic perspective developed from working experiences in librarianship. The EBLIP focused on the medicine library, however, it is spread to academic, special, school library. EBLIP process can be described through its five stage: formulate a question, find evidence, critically appraise the evidence, apply results of appraisal, evaluate change, redefine problem. It provides a standardized methodology of systematic review, which is a best evidence in EBLIP and is a new mixed research method.

키워드: 근거중심실무, 근거중심 문헌정보실무, 비평적 리뷰, 연구방법  
evidence-based practice, evidence-based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  
systematic review, research method

---

\* 이 논문은 제 15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2008년 8월 21일, 상명대학교)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이화여자대학교 강사(shpyo88@hanmail.net)

■ 논문접수일자: 2009년 2월 18일 ■ 최초심사일자: 2009년 2월 21일 ■ 게재확정일자: 2009년 3월 2일  
■ 정보관리학회지, 26(1): 351-370, 2009. [DOI:10.3743/KOSIM.2009.26.1.351]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문헌정보학은 정보의 생성, 수집, 이용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새롭게 연구된 이론이나 원리는 실무에서 활용되고 다시 이론의 수정이나 원리의 확장과 같은 학문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실무에서는 이론이나 방법론과 같은 연구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실질적으로 학문과 실무 간의 지식의 흐름과 활용은 연구된 이론이 실무에서 적용됨으로써 좀 더 깊이 있고 보완된 이론이나 원리 수립에 기여하는지, 반대로 연구 결과가 실무에 활용되어 문제 해결을 돕고 업무의 향상을 지원하는지 즉, 사서들은 연구의 도움을 잘 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 밝혀질 수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Booth(2002)는 역설적이게도, 사서들은 다른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결과의 탐색에는 전문가로 인정되지만 정작,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였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50%이상의 사서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연구 논문을 접하지만 또한 50%의 사서들이 연구 결과보다도 동료나 전문가의 의견을 더 선호한다는 결과(Powell, Baker, and Mika 2002)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Haddow와 Klobas(2004)도 실무에서 연구결과의 활용을 저해하는 11개의 격차 요인을 분석하여 보여줌으로써 Booth의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비단 Booth의 언급이 문헌정보학 분야의 사

서리는 전문 집단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Davies(1999)는 교육학 분야에서도 연구 결과들이 현장에서의 문제해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Fleischman(2006)도 관련된 연구의 부족, 어려운 학문적 용어의 사용, 정책적 의도가 내포된 연구에 대한 불신과 같은 이유로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의료서비스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던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입원과 외래환자들을 위한 의사의 진료 행위에서도 근거 없이 행해지는 것이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개인의 경험이나 졸업 전 학교에서 배운 지식, 직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17%의 간호사만이 연구결과를 실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하며 연구와 실무 간의 격차에서 오는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박명화 2006).

근거중심실무(evidence-based practice, EBP)는 이와 같이 연구와 실무 간에 나타날 수 있는 근본적인 괴리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한 움직임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 EBM)'으로 문헌정보학계에서는 '근거중심 문헌정보실무(evidence-based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 EBLIP)'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그 연구 영역과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전문직에서 나타나는 연구와 실무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써 EBLIP를 소개하여 EBLIP 연구에 대한 학계와 현장에서의 관심을 높이고 국내 적용 가능성을 살피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EBLIP의 개념, 발전 과정, 내용

분석에 우선 초점을 두었다. 여기에 EBLIP의 연구 및 활용 동향을 분석하여 학계 및 현장에서 EBLIP의 국내 적용가능성 파악을 위한 기초연구로 삼고자 하였다.

## 1.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계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EBLIP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EBLIP의 개념과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둘째, EBLIP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특히 EBLIP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근거의 유형을 살펴보므로써 EBLIP가 의학 및 간호와 같은 보건 분야의 EBP와의 차이를 파악하고 EBLIP만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EBP에서 수준 높은 근거로 간주하는 비평적 리뷰의 과정 및 근거의 평가 기준을 살펴보므로써 EBLIP가 지향하는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과 그동안 생산된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사회과학분야에서의 EBP의 확산 정도를 살펴보았다. 연구동향 분석은 주요 사회과학 관련 DB의 검색을 통해 '근거기반(evidence-based)'에 입각한 연구 논문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EBP의 연구 동향에 대한 거시적인 그림을 통해 현재 EBLIP 연구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EBLIP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EBLIP의 연구 동향은 관련 연구들의 내용분석으로 이루어졌다. EBLIP와 관련된 연구 논문들의 내용분석은 *International EBL Con-*

*ference*에서 발표된 논문, 대표적인 오픈 저널인 *Evidence-Based Library & Information Practice*, LISA에서 2000년 이후 EBLIP를 디스크립터로 갖는 논문 중 원문 입수가 가능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논문의 저자, 주제 분야, 관중 등을 분석하여 문헌정보학 내에서 EBLIP 연구자들의 활동, 주된 연구 분야, 연구 대상이 되는 관중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문헌정보학계에서 EBLIP 연구의 계기를 제공하며 현장에서 EBLIP의 도입과 활용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2. EBLIP의 개념과 발전

### 2.1 용어의 정의와 개념

'근거중심'이라는 용어는 'evidence-based'로 함축되어 학문적인 배경, 적용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분야에 따라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 EBM), 근거중심간호(evidence-based nurse, EBN), 근거중심교육(evidence-based education, EBE), 근거중심사회복지(evidence-based social work, EBSW) 등으로 지칭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들을 모두 통칭하는 의미로 근거중심실무(evidence-based practice, EBP)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EBP 또한 나라마다 다르게 사용하여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evidence-based practice'를 선호한다면 영국에서는 'evidence-based policy and practice' 등으로 칭하기도 한다(Mullen and Streiner 2006).

EBLIP는 초기에 'evidence-based librarian-

ship(EBL)'이라고 표현하다가 최근에는 'evidence-based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 (EBLIP)'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evidence-based information practice(EBIP)'라고도 쓰인다. 이를 우리말로 옮기면 'evidence'를 증거 혹은 근거로 칭할 수 있으며 'based'를 '~중심' 혹은 '~기반'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각을 '근거중심 사서실무', '근거중심 문헌정보실무', '근거중심 정보실무', '증거중심 사서실무', '증거기반 문헌정보실무'라고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증거와 근거를 유사한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로 간주하였고 'based'를 중심으로 사용하여 '근거중심 문헌정보실무'를 대표 표현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또한 '근거중심~'의 단어가 이미 국내 의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편적인 용어임을 감안하였다.

EBP 및 EBLIP와 관련된 용어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까지 EBLIP의 개념적 정의가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EBP의 시작이 된 EBM의 기본적인 개념을 간단히 살펴 보면 McKkibon(1998)은 EBM을 특정 환자 개인을 위한 임상적 결정을 위해 가장 이용 가능한 최상의 근거를 사용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환자의 특성, 상황, 선호에 기반하여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근거를 사용하는 신중함과 복잡성을 내포한다고 하였다. 박명화(2006)는 간호의 환경에서 환자 개인의 관점과 요구를 고려하고 간호사의 경험과 최선의 연구 결과에서 나온 임상 지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보건의료분야에서의 EBP 즉, EBM은 이용 가능한 근거를 환자 개인의 가치에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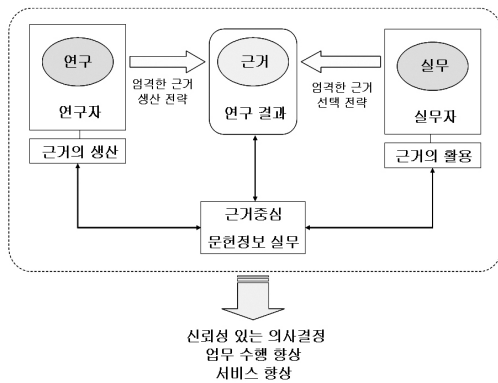
응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근거와 환자, 연구 결과로 나타난 전문적 지식이 결합한 의료 서비스의 수행으로 볼 수 있는데 EBLIP도 이와 유사한 개념을 갖는다.

Eldredge(2002)는 EBLIP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최상의 근거를 활용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연구 전략이며 또한 연구와 정보탐색을 포함하는 지식발전의 포괄적 접근 방법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도서관 현장의 경험에서 나온 실용적인 시각을 가지고 근거를 활용함으로써 도서관 업무 향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EBLIP의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Crumley와 Koufogiannakis(2002), 그리고 Eldredge(2006)은 EBLIP를 문헌정보학으로부터 나온 연구 결과를 조합함으로써 도서관 실무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방법이며, 과학적으로 생산된 최상의 이용 가능한 근거를 통합하고 도서관 실무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근거를 결합하는 과정이라 하였다.

앞서 살펴본 보건의료분야와 Eldredge(2002)의 정의에서는 최상의 근거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Crumley와 Koufogiannakis와 이후 Eldredge(2006)는 근거의 활용과 함께 실무에서의 경험과 근거의 결합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무와 근거를 결합하는 과정으로써 EBP를 보는 시각은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볼 수 있다. Roberts, Yeager와 Regehr(2006)은 EBP의 실무(practice)를 과정(process)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근거중심과정은 명확한 기준들에 의해 수행하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되는 실무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EBLIP를 문헌정보학 연구에 대한 포괄적 접근 방법으로 정의하면서 EBLIP를

연구와 실무 경험, 활용이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연계시켜 설명하고 있다.

EBLIP의 개념적 틀을 도식화해보면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이 EBLIP는 연구와 실무를 근거라는 연구 결과를 매개로 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이루는 과정이다. 또한 최상으로 이용 가능한 근거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EBLIP는 근거의 활용과 생산의 측면을 갖는다. 이때 근거의 활용과 생산은 이분된 것이 아니라 실무 환경에서 근거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근거의 생산 또한 실무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그림 1> 근거중심 문헌정보실무의 개념도

## 2.2 EBLIP의 발전

EBLIP는 EBM의 개념과 내용을 기반으로 발전 하였다. EBM은 Archie Cochrane이 주장한 연구 결과에 대한 체계적 평가인 비평적 리뷰(systematic review)의 성장과 그 틀을 같이 한다. Cochrane은 그동안 의학연구가 실질적으로 환자의 치료나 처방에 반영되지 못했던 의학계 현실을 비판하면서 연구 결과에 대한

임상 적용을 강조하였고 EBM은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80년대 중반부터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임상결과의 적용에 대한 '과학적 의학'에 대한 연구가 1991년 이후 EBM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워지면서 의학 분야의 근거중심실무가 연구와 실무 양쪽으로 본격화 되었다(Brice and Hill 2004).

1990년대 중반에는 근거중심간호를 비롯한 보건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산되었으며, 2000년을 전후해서는 사회복지, 교육 등의 대인 서비스 영역에서도 근거중심실무의 도입이 본격화 되었다. 또한 국가 정책의 수립에 있어 근거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공공서비스의 효과성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와 같은 국가에서도 공공분야의 정책 수립과 수행 및 평가에 있어 근거중심 개념을 적용하고있다(김명수 2007).

특히 EBLIP의 발전에 있어 EBM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EBLIP가 EBM를 기반으로 시작되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임상 실험 연구팀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연구 논문의 비평적 평가를 수행한 의학도서관 사서들이 EBLIP 발전에 주축이 되었다는 것이다(Booth and Brice 2004). 누구보다도 많은 의학정보를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의학도서관 사서들은 특정 주제에 대한 근거의 수집과 평가에 깊이 관여하였으며 근거의 평가 방법론을 수립하고 체계를 세우는데 큰 공헌을 하였고 이러한 틀을 문헌정보학 전반에 걸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문헌정보학계의 EBLIP는 EBM에 참여한 사서와 연구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는데 EBLIP의 초창기 연구자인 Andrew Booth와 Jonathan Eldredge 또한 의학도서관

사서로서 수십년의 경력과 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개별적으로 관심 있는 학자들의 연구들이 있었으나 EBLIP 연구에 대한 대표적인 학술 활동은 Booth와 Eldredge에 의해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였다. 이 학술대회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격년에 걸쳐 네 차례가 열렸으며 2006년에는 근거중심 문헌정보실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Evidence-based Library & Information Practice*가 오픈 액세스 방식으로 창간되었다. 2006년 *Library Hi Tech*에서는 근거중심 문헌정보실무를 주제로 하는 특집호가 발행되어 문헌정보학에서 근거중심 문헌정보실무의 개념, 정의, 적용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록하였다. 문헌정보학 교육에 있어서도 2005년부터 미국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의 문헌정보학 대학원에서는 매학기 EBM 및 EBLIP와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 3. EBLIP에서의 근거

#### 3.1 근거의 정의

EBLIP에서 근거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근본이 되는 거점', '어떤 일이나 의논, 의견에 그 근본이 되거나 그러한 까닭'을 의미하고 유사한 용어인 증거에 대한 정의도 보면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가리킨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08).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에서는 증거를 '결론을 내리거나 판단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The Compact Oxford English Dic-

tionary는 근거를 '신념이나 주장이 사실인지 혹은 타당성이 있는지를 가리키는 정보나 신호'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국외문헌에서는 근거를 단순히 연구 결과 혹은 연구 논문으로 광범위하게 인식하고 있고 근거의 유형이나 수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간호와 정책분야에서 근거의 정의나 종류를 기술하고 있다. 박명화(2006)는 근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이해 가능해야 하며 보편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 세 가지의 속성을 가장 잘 충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설계를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김명수(2007)는 증거에 기초한 정책운동을 주도한 영국에서 기술한 다양한 형태의 근거를 통해 근거를 좀 더 현실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근거는 전문가의 지식, 연구 간행물, 기존의 연구, 이해관계자 협의, 정책평가, 인터넷 정보, 자문 결과, 정책대안에 대한 비용, 경제적·통계적 모델링의 산출물 등이 해당된다.

EBLIP에서 근거는 문헌정보학에서 이용자 서비스를 위한 정책의 수립, 결정, 수행과 같은 일련의 활동과 문제해결에 요구되는 정보로 이는 연구논문, 미 출판된 회색문헌, 인터넷 정보, 각종 데이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EBLIP에서의 근거는 단순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질문에 대한 보편적 활용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EBLIP에서의 근거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연구 방법론을 기반으로 수행된 신뢰성 높은 연구의 결과를 의미한다.

### 3.2 근거의 유형과 수준

연구결과인 근거는 연구방법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생산된다. 또한 연구방법을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정보의 수집 및 분석방법에 따라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와 같이 단순하게 양분하기도 하고 양적 연구도 어떠한 과정과 성격을 지녔는가에 따라 사례연구, 조사연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근거를 Crumley와 Koufogiannakis(2002)가 제시한 유형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이 근거의 유형은 주로 의학 분야의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 설계 혹은 연구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근거들을 상당히 세분화 하고 있다. Eldrege(2000)는 의학 분야의 연구 유형을 좀 더 간략하게 분류하였는데 세분화된 사례 연구들을 통합하여 비평적 리뷰, 메타 분석, 무작위

<표 1> 근거의 유형

근거 유형	정의
계량서지연구(Bibliometrics)	서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연구.
사례 보고(case report)	개별적 사례의 기술로 구성된 연구.
사례 연구(case study)	특정 사례나 경우에 대한 집중적인 탐구로부터 나온 다양한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사례 시리즈(case series)	통계집단이 없는 유사한 방법으로 처치된 환자 군에 대한 연속적인 보고서.
코호트 연구(Cohort Study)	질병이 발생되기 이전에 특정 질병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요인을 가진 자와 안가진 자를 선정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이들을 추적 관찰하면서 특정 질병의 발생정도를 폭로군 별로 비교하는 방법.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	단어, 단락, 개념, 주제, 인물, 사건, 인쇄되거나 영상자료에 포함된 단락에서 나타난 것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에 기반한 연구.
교차연구(cross-over study)	임상실험의 일종으로 치료약에 대한 효능을 밝히기 위해 처방을 받는 피실험자들에게 대한 장기적 연구.
횡단면적연구 (cross-sectional study)	예를 들어 현 시점에서의 영양상태와 그 주변 여건 관련 요소들에 대한 자료를 다 모아 그 자료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과 아닌 집단 간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 방법.
표적집단연구(focus group)	특정 주제에 대한 논의를 이끄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6명에서 12명 사이의 작은 집단의 토론.
역사적 연구 (historical study)	대부분의 역사적 연구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모두를 포함한다. 서신, 일기, 역사학자에 의해 쓰여진 것과 같이 역사적 문헌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인터뷰(interview)	구조화된 인터뷰와 비구조화된 인터뷰가 있다. 구조화된 조사인터뷰는 인터뷰자에 의해 질문과 응답의 범주가 구조화되어 있다. 비구조화된 인터뷰는 질문에 대한 단어도, 응답에 대한 것도 미리 정해져 있지 않는다.
문헌 리뷰(literature review)	연구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문헌 검토
메타 분석(meta-analysis)	통계적 방법을 사용한 특정 연구 질문에 대해 이용 가능한 근거를 통계적으로 모아 통합 분석한 것.
관찰연구 (observational study)	사건에 대해 연구자가 약간 혹은 거의 통제를 하지 않고 위험요인과 결과 척도 간에 관계를 관찰자의 개입 없이 하는 관찰에 대한 반적인 용어. 역학에서의 대부분의 조사나 연구가 이 부류에 속한다.
무작위통제연구 (randomised controlled trial)	개인들은 무작위로 실험적, 예방적, 처방적, 치료적 절차를 받거나 혹은 받지 않게 되며 이후 중재의 효과가 관찰된다.
비평적 리뷰(systematic review)	편의를 줄이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수행된 특정 주제에 대한 체계적 리뷰.

\* 출처: Crumley and Koufogiannakis(2002)

실험 연구, 코호트 연구, 비교연구, 조사연구, 사례연구, 전문가 의견으로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표 1〉에서 제시된 근거의 유형들은 사회과학이나 문헌정보학의 연구 유형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Powell과 Connaway(2004) 및 Pickard(2007) 등이 기술하고 있는 연구의 유형을 보면 사례연구, 조사, 실험연구, 문화기술지, 텔파이 연구, 현장 연구 등으로 나타나있다. 정책분야에서 Davies(2004)가 제시한 연구 유형은 실험연구가 대부분인 의학연구와는 달리 연구의 속성에 따라 비평적 리뷰, 단일연구, 사전연구와 사례연구, 전문가의 의견, 인터넷정보와 같은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근거들은 모두 기술적 연구, 관계적 연구, 실험적 연구와 같은 큰 범주에 속하지만 학문적 특성에 따라 의학분야의 연구가 주로 실험연구에 속한다면 문헌정보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는 전자들의 연구 유형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 유형에 관한 논의가 EBLIP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EBLIP의 궁극적인 목적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이용 가능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의 목적, 의도와 같은 상황에 따라 다른 수준을 갖기 때문이다.

Eldrege(2000)에 의해 구분된 근거를 기반으로 그 수준을 보면 〈그림 2〉와 같이 비평적 리뷰, 메타 분석, 무작위 실험연구 및 코호트연구, 조사연구, 사례연구, 전문가 의견의 순이다. 의학 연구의 특성상 실험연구, 비교연구, 코호트 연구와 같이 일정한 의학적 처치 여부에 따른 다양한 실험연구들과 2개 이상의 연구를 통합하여 비교한 메타분석이나 비평적 리뷰가 상위의 근거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근거의 질은

무작위 실험연구나 코호트연구와 같은 단일연구보다 2개 이상의 연구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비평적 리뷰가 가장 상위를 차지한다. 근거의 수준이 높다고 하면 결과의 내외적 타당성이 높아 동일한 상황에서 해당 결과를 적용하는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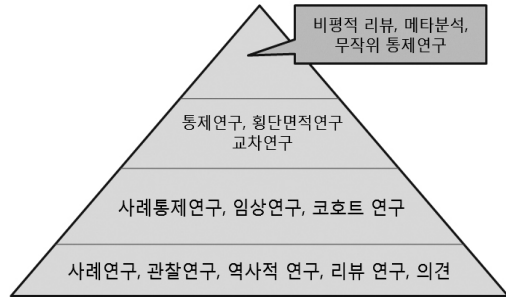
정책분야에서 근거중심의 개념을 연구하는 Davies 또한 근거의 수준을 정함에 있어 비평적 리뷰를 가장 강력한 근거로 간주하고 있으며 사례연구나 전문가 의견, 인터넷 정보는 낮은 수준의 근거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Eldrege(2006) 또한 비평적 리뷰가 가장 수준 높은 근거로 간주하나 근거의 수준을 논함에 있어 학문적인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즉, 실험연구가 대부분인 의학 분야에서는 사례연구, 질적 연구, 조사연구를 낮은 수준의 근거로 간주하나 도서관 업무는 조사연구나 표적집단 인터뷰와 같은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근거의 수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이와 같은 학문적인 차이를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림 3〉은 현재 문헌정보학 분야의 근거 현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리뷰연구나 사례, 관찰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사실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EBLIP 저널에 수록된 근거 리뷰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림 4〉를 보면 설문조사나 질적 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의학 분야의 연구 유형에 따른 근거의 수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학문적인 고유의 특성을 고려해서 문헌정보학 연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EBLIP형 근거와 그 수준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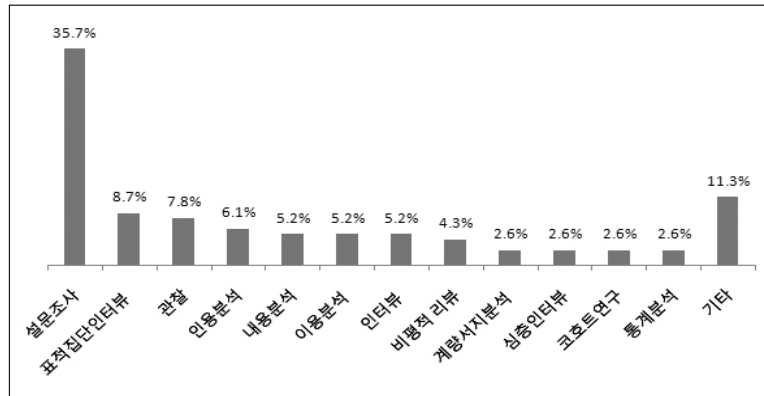




<그림 2> 문헌정보학 분야 근거의 현황



<그림 3> EBM 측면에서 본 의학 분야 근거의 수준



<그림 4> EBLIP 저널에 수록된 문헌정보학분야 근거의 수집 방법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실험연구의 부족을 학문적 차이만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고민 없이 EBLIP의 적용을 시도한다면 장혜란(1993)의 주장처럼 차질 연구의 방법론적 기반이 빈약함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 3.3 비평적 리뷰

일반적으로 단일 연구는 불가피하게 표본의 특성, 시간적 특성, 상황적 특성이라는 한계점을 갖기 때문에 그 결과의 일반화와 보편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또한 단일 연구는 엄격한 방법론과 기준의 적용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결과의 활용을 용이하게 할 수 없는 단점을 갖는다. 전통적인 리뷰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주어진 주제나 특정 연구에 대해 질적이고 서술적으로 쓰여지고 정보의 수집과 해석도 비공식적이며 주관적으로 행해진다(Davies 2004). 반대로 비평적 리뷰는 단일 연구와 서술적 리뷰가 갖는 이러한 약점을 없애기 위해 명확하고 엄격한 리뷰 기준과 구조를 갖는다. Jadad(1998) 등에 의하면 비평적 리뷰는 특정 주제에 대한 관련된 연구의 광범위한 검색과 그것들을 미리 정해진 명확한 방법에 따라 검토하고 통합하는 리뷰이다. Khan(2003) 등은 관련된 연구를 파악하고 그것들의 품질을 검사

하고 그 결과들을 과학적 방법론을 이용해서 통합하고 요약하는 연구논문이라고 하였다. 즉, 비평적 리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이용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근거로 의사결정과 실무 를 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근거이다.

일찌기 근거중심실무가 확산된 의학계에서는 1993년에 설립된 The Cochrane Collaboration 을 통하여 의학 및 보건 분야의 비평적 리뷰의 생산과 보급에 힘쓰고 있으며 2000년에 설립된 The Campbell Collaboration은 교육, 사회복지, 범죄 및 정책분야의 비평적 리뷰의 생성과 근거의 비평적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비평적 리뷰의 방법론을 Campbell Collaboration의 리뷰 지침을 통해 보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지침은 연구의 설계, 정보검색, 통계분석, 경제적 방법론 4개의 분야로 제시되어 있다 (Campbell Collaboration 2004).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설계는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 설계와 관련한 핵심 논점을 파악하여 설명하고 있다. 무작위 설계, 준실험설계 등 다양한 연구의 설계 모형들을 소개하며 해당 주제에서 권장되는 연구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 모형으로 수행된 사례를 기술하도록 하여 실무에서의 응용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둘째, 정보 검색에서는 검색 용어, 검색식의 제시와 같은 검색 전략, 검색 DB, 검색의 효율적 수행, 검색결과에 대한 리뷰자의 선택 기준 등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신뢰성 있는 리뷰를 위해 검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 가용성, 비용, DB, 참고문헌, 결과, 인용 등에서 오는 편의를 고려하도록 한다.

셋째, 통계적 분석에서는 리뷰에 포함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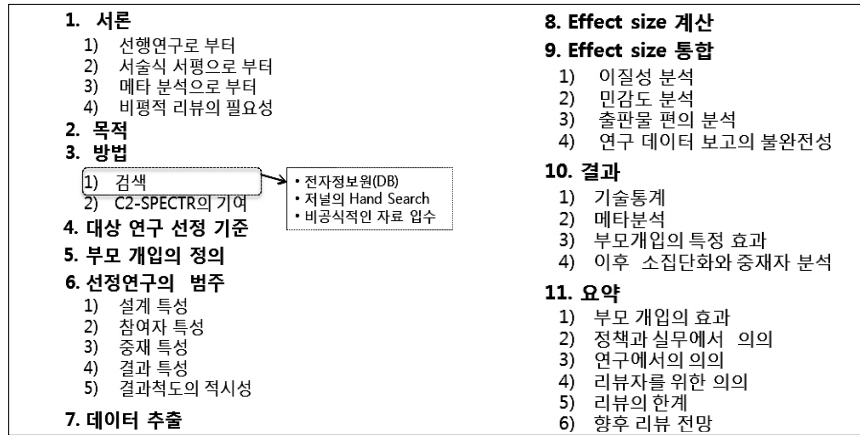
연구들의 통계적 통합이 요구되는 조건, 통계적 통합 분석에 필요한 내용, 절차, 방법, 등이 기술되어 있다.

넷째, 리뷰 작성에 있어 경제적 측면이 기술되어야 할 때, 리뷰자가 고려해야 할 경제적 분석 방법론에 대한 내용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연구에서 질 높은 방법론의 적용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을 제시하고 있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연구의 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리뷰 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평적 리뷰는 질문의 제기, 관련 문헌 파악, 문헌의 질 평가, 근거의 요약, 결과 해석이라는 단계로 진행되는데 Campbell Collaboration에서 제공하는 교육학 분야의 비평적 리뷰의 한 예를 보면 다음 <그림 5>와 같다(Nye, Turner, and Schwartz, 2006). 제기된 문제는 '초등학생의 학업증진을 위한 부모의 개입'이다.

이 주제에 대한 리뷰의 필요성이 선행연구, 기존의 리뷰, 메타 분석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리뷰 방법, 선정된 연구의 범주화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어 있다. 또한 추출된 데이터를 통해 개별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를 제거하고 있으며 제시된 결과도 단순한 기술통계에서 메타 분석의 결과까지 보여준다. 비평적 리뷰가 가장 활용도가 많은 수준 높은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연구 결과의 체계적인 분석과 함께 정책 및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평가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비평적 리뷰는 실무에 투입될 가장 수준 높은 신뢰성 있는 근거로 이 리뷰는 실무에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정하고 이와 관련 연구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검색을 보여주며 리뷰에 포함된 연구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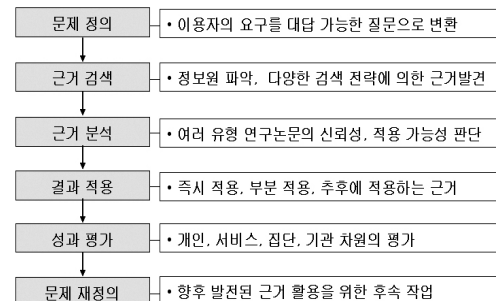


\* C2-SPECTR: Campbell Collaboration(C2)-Social Psychological, Educational and Criminological Trials Register

<그림 5> 교육학 분야 비평적 리뷰의 목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리뷰의 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준다. 또한 선택된 연구에서 명확하고 재생산이 가능한 데이터를 추출, 분석하고 결과에 대한 제한점과 강점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C2의 리뷰지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결과 통합의 한 형태인 메타분석 또한 비평적 리뷰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어 비평적 리뷰는 메타분석을 포함하는 다른 형태의 연구 통합 모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관점에서 결과의 적용과 평가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근거의 활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림 6> EBIP의 과정

#### 4. EBLIP 수행 과정

EBLIP는 <그림 6>과 같이 문제의 정의, 근거 검색, 근거 분석, 결과 적용, 성과의 평가, 문제의 재정의를 여섯가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문제의 발견, 문제의 공식화, 가설의 설정, 가설 검증을 위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결과의 해석으로 수행되는 연구 과정과 유사하다. 그러나 EBLIP는 실무의

첫째, 정보 요구를 '명확히 구조화된 질문'으로 바꾸는 문제 제기의 단계이다. 이 단계의 목적은 '대답 가능한 질문'으로 변환시키는 것인데 질문의 내용을 공식화하고 기술하는 것은 연구 설계의 방향을 결정하고 요구되는 근거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가장 적절한 응답을 이끌어내고 연구 설계가 가능한 질문의 형식은 PICO(Population,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모형이나 SPICE(Setting, Perspective, Intervention, Comparison, Evaluation) 모형에서 볼 수 있다(Booth 2003). 이 모형들은 이용자들의 요구를 이용자의 환경, 관점, 서비스, 대안, 평가의 틀에서 정형화함으로써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대학도서관에서 학부생들을 위한 지정도서 제도의 효과” 라는 질문을 SPICE 모형으로 공식화하면 다음 <표 2>와 같은 형식이 되겠다.

<표 2> SPICE 모델에 의한 질문의 공식화

SPICE 모델	예 시
Setting(환경)	대학도서관
Perspicitive(관점)	학부생
Intervention(서비스)	지정도서 서비스
Comparison(비교)	일반장서
Evaluation(평가)	장서의 가용성의 효과

둘째, 근거의 발견을 위해 정보원을 파악하고 다양한 검색전략으로 근거를 검색한다. EBLIP에서 근거의 검색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문헌, 회색문헌, 문헌정보학 분야 이외의 관련 학문분야의 문헌을 기반으로 한다. 특히 문헌정보학분야 문헌을 수록한 많은 DB들의 수록범위, 수록 내용과 같은 특성을 파악하고 질문의 분야에 따라 검색해야한다. Crumley와 Koufogiannakis(2002)는 대부분의 질문들은 참고질의, 교육, 장서, 경영, 정보 접근과 검색, 마케팅 및 홍보 6개 분야에 포함되며 각각의 분야에 속한 질문을 위한 정보원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정보원에서 LISA나 LL과 같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고전적 DB이외에도 교육과 관련된 질문에는 ERIC, Educational Research Abstracts와 같은 교육 분야 DB가, 도서관 경영에는 EconLit와 같이 경제경영 분야의 전문 DB가 포함되어 있다.

셋째, 여러 가지 유형의 근거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평가, 적용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한다. Booth와 Brice(2004)는 이러한 근거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표 3>과 같이 볼 수 있다.

<표 3> 근거 평가 체크리스트

1) 연구가 사실을 표현하는데 근접하게 수행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가 명확히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li> <li>• 연구가 그 분야에서 의의가 있는가?</li> <li>• 추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직접적인 비교가 있는가?</li> <li>• 일련의 데이터 집합에 포함된 것들이 이용자 집단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포함되었는가?</li> <li>• 이용자 선택에 사용된 방법이 적절하고 확실히 기술되어 있는가?</li> <li>• 표본 이용자가 전체 이용자를 대변할 수 있는가?</li> </ul>
2) 결과가 신뢰할 수 있고 반복가능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률이 어떻고 연구에서 인구의 대표성은 어떠한가?</li> <li>• 결과가 완벽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석되었는가?</li> <li>• 파악되고 논의되어야할 연구방법상의 한계는 무엇인가?</li> </ul>
3) 결과가 내 자신의 정보업무에 도움을 줄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가 당신의 다른 인구집단에도 적용가능한가?</li> <li>• 서비스의 현재 상황에서, 비용의 관점에서, 당신 이용자의 기대와 태도의 관점에서 연구가 당신의 업무에 제공하는 의의는 무엇인가?</li> <li>• 연구 결과가 당신의 업무에 도움이 되기 위해 추가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더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li> </ul>

이들이 제시한 근거 평가 항목들은 Powell과 Connaway(2004, 23-24)가 제시한 연구수행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항목들과 유사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Powell과 Connaway가 제시한 평가가 연구의 범위와 정의, 가설, 개념, 연구 방법, 설계, 표본, 변인, 결과의 해석과 같이 연구수행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위한 항목들로 되어 있다. 반면 EBLIP 수행과정에서 근거의 평가는 실무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해당 근거가 업무에 얼마나 도움을 제공하는지가 중요한 결과가 된다.

넷째, 결과의 적용 및 활용이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근거는 다양한 적용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경우가 많고 결과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Koufogiannakis와 Crumley(2004)는 근거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이용자 집단, 적시성, 비용, 정치적 상황, 엄격성으로 이들이 자신의 문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성과 평가는 두 범주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올바른 근거중심실무의 단계를 거쳐 수행했는가, 정확한 질문에 대한 근거를 수집했는가, 수집한 근거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선정했는가와 같은 EBLIP 수행 과정상의 평가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근거로 실무가 향상되고 효과가 있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EBLIP의 최종 목적이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업무상의 효과를 얻는 것이다. 이때 업무상의 효과는 조직의 의사결정과 수행에 가시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데 EBLIP의 수행은 결국 이러한 가시적인 영향력을 이끌어내는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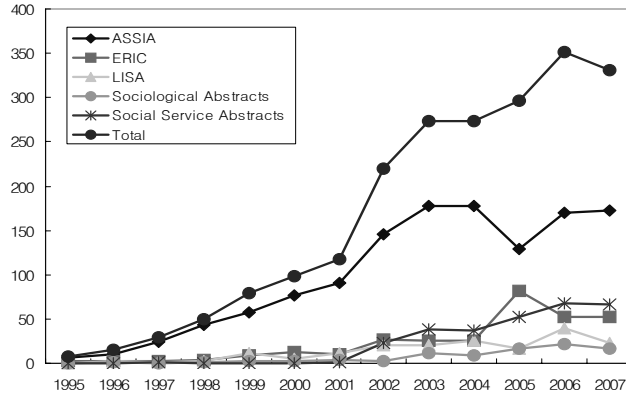
적인 활동이라 하겠다.

## 5. EBLIP 연구 동향 분석

### 5.1 EBP의 확산

의학 분야에서 출발한 근거중심 운동은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확산되며 90년대 후반부터 EBP 관련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교육학, 공공서비스, 사회학, 문헌정보학 분야의 대표적인 DB인 ERIC, Social Service Abstracts, Sociological Abstracts, LISA, Applied Social Science Index and Abstracts(ASSIA)에 수록된 연구논문의 현황을 통해 살펴보았다. 각 분야를 대표하는 DB에서 'evidence-based'라는 용어가 서명에 있거나 디스크립터로 선정된 연구논문의 건수를 측정하였다. 논문은 심사가 완료된 순수 연구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검색의 시간적 범위는 사회과학분야에서 evidence-based가 태동했다고 판단한 1995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까지이다.

〈그림 7〉을 보면 ASSIA이외에 대부분의 DB에서는 2000년 이전까지 관련 연구가 한두 편에 지나지 않으나 2000년 이후로는 모든 분야에서 연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과학 전반의 연구 논문을 수록하는 ASSIA의 경우 1995년 이후 꾸준하게 EBP 연구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과학분야에서 EBP 연구의 발전 동향을 보여준다. 문헌정보학, 교육 분야에서도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공공서비스분야에서의 연구 논문의 증



<그림 7> 사회과학분야에서 EBP 연구의 증가

가는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

### 5.2 EBLIP의 연구 동향

한 학문분야의 연구 활동과 발전은 대표적으로 해당 연구 주제를 전문적으로 수록하는 학술지와 학술대회와 존재 여부를 통해 볼 수 있다. EBLIP 연구 또한 2000년 이후 학술활동이 본격화 되었는데 이는 현재까지 총 4번에 걸친 국제학술대회와 오픈저널의 창간을 통해 엿볼 수 있다. A. Booth의 주도로 2001년부터 시작된 International EBL Conference는 격년간으로 개최되어 2007년에 4회 학술대회를 치르기에 이르렀다. 작은 규모로 시작된 1회 학술대회에 비하면 Booth 자신도 놀란다고 언급할 정도로 3회와 4회의 학술대회에는 많은 연구자와 실무자가 참석하였다. 근거중심 문헌정보실무의 보급을 위해 2006년에 창간된 오픈 액세스 방식의 계간 학술지인 Evidence-based Library & Information Practice는 근거중심 문헌정보실무와 관련된 연구 논문 및 사례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거 요

약을 통해서 매 호마다 실무를 위한 근거로서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연구 논문들을 연구 목적, 연구 방법론, 연구 결과, 연구의 의의 및 실무의 적용 가치 등을 비평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EBLIP의 연구 동향은 EBLIP를 주도한 연구자들의 활동인 국제학술대회와 오픈 저널인 Evidence-Based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 LISA에 수록된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국제학술대회의 수록 논문은 2005년 3회 학술대회와 2007년 4회 학술대회에 발표된 논문의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고 저자, 주제, 대상 도서관의 관종을 분석하였다. 저자 분석을 통해 EBLIP 연구의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관종 및 주제를 분석함으로써 관종별 도서관에서 향후 EBLIP 적용과 응용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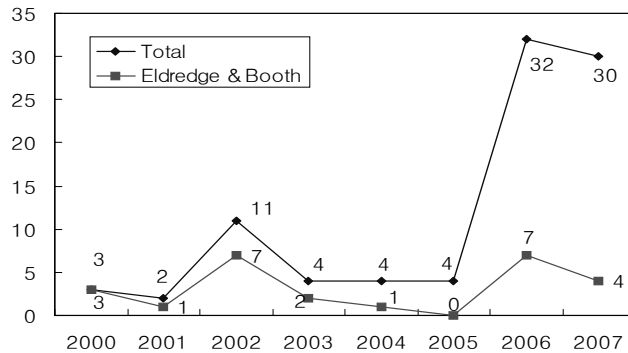
저자분석은 가장 많은 연구 논문을 수록한 LISA를 대상으로 하였다. LISA에는 2000년부터 디스크립터로 evidence-based librarianship이 사용되고 있다. 이 디스크립터가 적용된 문헌을 찾으면 2008년까지 94건이 검색된다. 2007

년까지 검색된 90건의 저자를 살펴보면 <그림 8>과 같이 초기부터 활동한 J. D. Eldredge와 A. Booth의 비중이 2006년부터는 매우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06년부터 근거중심 문헌정보 실무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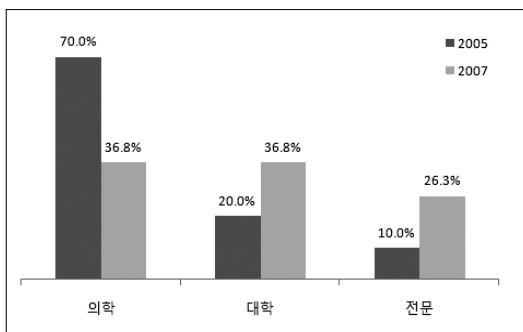
EBLIP가 연구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을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통해 보면 <그림 9>와 같다. 이 중에서 연구 대상 관중 구분이 가능한 논문을 보면 2005년에 비해서 2007년 학술대회에서는 의학도서관에 대한 연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 환경에서의 연구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LISA에 수록된 연구 논문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림 10>과 같이 2005년 이전까지는 의학도서관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06년 이후 부터는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이 주요 EBLIP의 연구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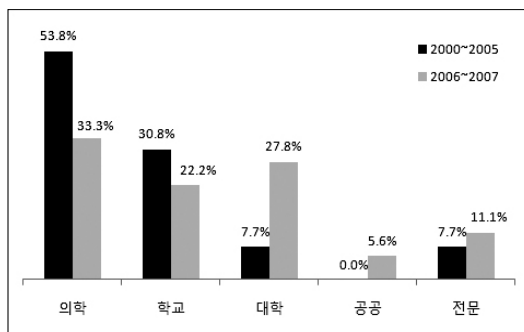
오픈 저널에 수록되는 근거 요약에 나타난 관중을 보면 <그림 11>과 같다. 대학도서관 환경에서 연구한 논문에 대한 근거 요약이 가장 많은데 57.1%의 대학도서관 관련 논문에 대학에 속한 의학도서관까지 포함시킨다면 그동안 수행한 연구에서 EBLIP의 근거를 추출한 대부분의 관중은 대학도서관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근거



<그림 8> LISA에 수록된 EBLIP 연구자 동향



<그림 9> EBL 학술대회에 발표된 논문의 대상 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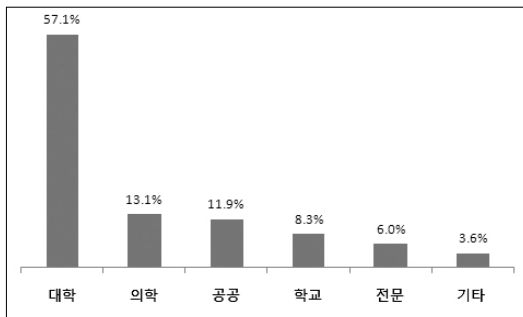
<그림 10> LISA에 등재된 연구 논문의 대상 관중

요약으로 가장 많이 수록되고 있는 것은 공공이나 학교, 전문도서관에 비해 연구 결과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고 연구 환경 또한 유리하다는 점에서 EBLIP가 지향하는 근거의 생산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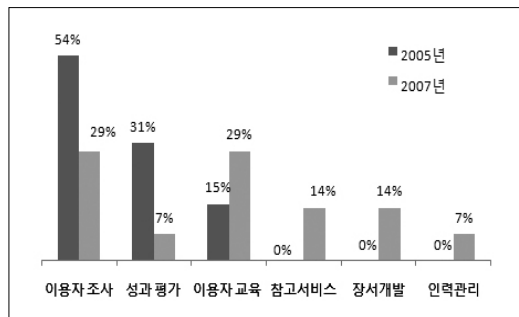
발표된 논문의 주제 면에서도 초기 연구에 비해 다양해진 것을 알 수 있다.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주제 구성을 분석해 보면 <그림 12>와 같다.

또한 LISA에서 검색된 논문의 디스크립터를 통해 EBLIP의 연구 영역을 살펴 보면 연구 방법, 업무수행 영역, 일반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업무수행 영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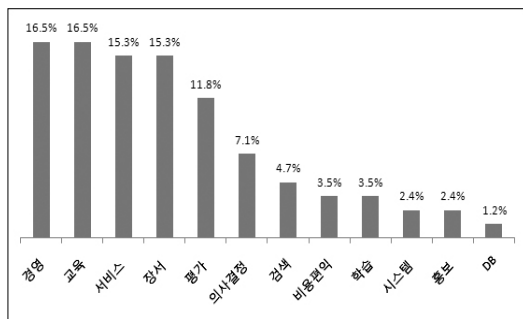
림 13>과 같이 경영, 교육, 서비스와 같이 도서관 업무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국제학술대회 및 오픈 저널 수록 논문은 내용분석을 통해 주제를 분류하였고 LISA 논문은 부여된 디스크립터를 그대로 사용하여 약간의 분야간 용어의 차이는 보이나 EBLIP저널에 수록된 근거 요약에서 나타난 연구 논문의 주제분야인 <그림 14>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즉, EBLIP 연구 주제는 도서관 경영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나 직접적인 이용자 대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도서관 이용 교육이나 서비스 분야에서 많이 수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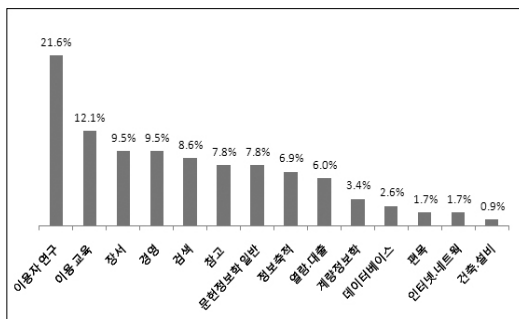
<그림 11> 오픈 저널 EBLIP의 근거 요약에 나타난 관중



<그림 12> EBL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주제 구성



<그림 13> LISA의 디스크립터를 통해 본 EBLIP의 업무 영역



<그림 14> 오픈 저널 EBLIP 근거 요약에 나타난 주제 분야



## 6. 결 론

의학계에서 90년대의 성공사례로 평가받는 근거중심의 패러다임은 2000년 이후 교육, 사회복지, 범죄, 정책 등 대인 서비스와 관련된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이미 의학계에서는 90년대 초에 Cochran Cooperation과 같은 근거평가기구를 통해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비평적 리뷰를 생산함으로써 의료 현장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육이나 사회복지 분야도 Campbell Cooperation과 같이 Cochran에 견줄만한 근거 평가와 생산 기구를 설립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근거중심의 기본 철학은 연구와 실무 간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간 각 분야에서 이론과 현장에서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노력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 노력들이 근거중심과 같이 학제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못하였다. 연구와 실무와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실무환경에서도 이용하기 쉽고, 상황에 적합하고, 신뢰성이 높은 연구결과의 활용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비평적 리뷰는 근거중심 연구의 성과로 관련 분야의 연구를 통합한 것으로 리뷰의 전 과정이 과학적인 방법론에 의거한다. 엄격한 원칙과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평적 리뷰의 상세 지침을 살펴보면 리뷰에 포함되는 개별 연구 또한 엄격한 방법론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EBLIP 연구는 엄격한 연구 수행을 통해 신뢰성 있는 근거를 생산하고 실무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연구 및 실무 수

행 방법론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정보학 연구 방법론에 대한 검토의 틀을 새롭게 제공하고 있다. Glynn(2007)은 EBLIP가 '좋은 연구'나 '철저한 연구'와 상당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그것이 없으면 EBLIP도 가능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EBLIP가 의미를 갖는 것은 여기서 더 나아가 기존 연구를 활용하는 과정을 정형화 하고 평가하며 응용한 결과로 얻어지는 변화를 측정하는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철저한 연구' 그 이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장에서 업무 성과 향상을 위해 연구 결과의 활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방법론을 제공한다. 특정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수행되는 비평적 리뷰의 과정은 실무에서 문제해결의 과정이며 리뷰의 결과는 문제해결을 위한 최상의 신뢰성 있는 근거가 된다.

셋째, 연구와 실무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의 연구 활성화를 지지한다. EBLIP에서 상위에 있는 근거는 주로 실험연구를 통해 나온 연구 결과이다. 그러나 의학 분야와는 달리 문헌정보학계에서 실험연구는 적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근거의 수준을 논함에 있어 학문분야에서 오는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다양한 실험연구의 활성화 또한 요구된다 하겠다. 장혜란(1993)이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우수한 실험연구의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과 같이 EBLIP에서 수준 높은 근거는 최종적인 이용자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생산될 필요가 있다.

EBLIP의 목적은 신뢰성 높은 근거의 생산과 실무에서 근거의 활용을 높여 업무 성과를 높이는 것이며 이에 대한 하나의 방법으로 현장에서 유리한 실험연구의 활성화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EBLIP를 국내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계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첫째, 국내 문헌정보학계에서 EBLIP에 대한 연구가 시작인 상황에서 이를 현장에 도입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계 및 현장의 관심을 높이고 EBLIP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EBLIP라는 이름 아래 발표되는 연구와 국내 문헌정보학계에서 그동안 수행한 사례 연구나 실증 연구와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EBLIP 실현을 위한 연구결과의 체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근거를 활용할 실무 현장의 환경 분석을 통해 EBLIP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한다. 즉, 실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결과의 활용 정도에 관한 현황을 파악한다. 또한 EBLIP를 정보관리 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요소 파악을 위해 해외에서의 도입과정을 다룬 문헌과 관련 활동에 대한 분석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EBLIP의 효과적 도입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한 학계와 현장의 의견 수렴이 요구된다. 특히, 전략의 수립은 국내 도서관계의 중견 실무자를 대상으로 집단 토의를 통해 앞서 파악된 요소들의 수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됨으로써 그 실현성을 높일 수 있겠다.

## 참 고 문 헌

-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 김명수. 2007. 『증거에 기초한 정책결정과 증거를 산출하는 평가에 관한 연구』. 감사원 평가연구원 전문가 연구 시리즈, 2007-001.
- 박명화. 2006. 『근거중심 간호의 이해와 적용』. 서울: 군자출판사.
- 장혜란. 1993. 문헌정보학에 있어서의 실험적 연구 방법.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5: 325-341.
- Booth, Andrew. 2002. "Mirage or reality?" *Health Information and Libraries Journal*, 19: 56-68.
- Booth, Andrew. 2003. "Bridging the research-practice gap? the role of evidence based librarianship." *The New Review of Information and Library Research*, 9(1): 3-23.
- Booth, Andrew and Anne Brice. 2004. "Appraising the evidence." *In Evidence-Based Practice for Information Professionals: a handbook*. Edited by Andrew Booth and Anne Brice. London: Facet Publishing.

- Brice, Anne and Alison Hill. 2004. "A brief history of evidence-based practice". In *Evidence-Based Practice for Information Professionals: a handbook*. Edited by Andrew Booth and Anne Brice. London: Facet Publishing.
- Campbell Collaboration. 2004. *Method Policy Briefs*. [cited on 2008.12.20]. <[http://www.campbellcollaboration.org/resources/methods\\_policy\\_briefs.php](http://www.campbellcollaboration.org/resources/methods_policy_briefs.php)>.
- Crumley, Ellen and Denise Koufogiannakis. 2002. "Developing evidence-based librarianship: practical steps for implementation." *Health Information and Libraries Journal*. 19: 61-70.
- Davies, Philip. 1999. "What is evidence-based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7(2): 108-121.
- Davies, Philip. 2004. "Is evidence-based government possible?" *The 4th Annual Campbell Collaboration Colloquium*. Washington D.C. 19 Feb. 2004.
- Eldredge, Johathan. 2000. "Evidence-based librarianship: an overview." *Bulletin of Medicine Association*. 88(4): 289-302.
- Eldredge, Johathan. 2002. "Evidence-based librarianship: what might we expect in the years ahead?" *Health Information Libraries Journal*, 19(2): 71-77.
- Eldredge, Johathan. 2006. "Evidence-based librarianship: the EBL process." *Library Hi Tech*. 24(3): 341-354.
- Fleischman, Steve. 2006. "Moving to Evidence-Based Professional Practice." *Educational Leadership*, March: 87-89.
- Glynn, Lindsay. 2007. "Editorial: Defending evidence-based practice". *Evidence Based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 [online], 2(2): 1-2. [cited 2008.7.21]. <<http://ejournals.library.ualberta.ca/index.php/EBLIP>>.
- Haddow, Gaby and Jane E. Klobas. 2004. "Communication of research to practice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losing the gap."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6(1): 29-43.
- Jadad, Alejandro R., David Moher, Terry P. Klassen. 1998. "Guides for Reading and Interpreting Systematic Reviews." *Archives of Pediatrics and Adolescent Medicine*, 152: 700-704.
- Khan, Khalid S., Regina Kunz, Jos Kleijnen and Gerd Antes. 2003. *Systematic Reviews to Support Evidence-Based Medicine: how to review and apply findings of healthcare research*. 2003. London: The Royal Society of Medicine Press Limited.
- Koufogiannakis, Denise and Ellen Crumley. 2004. "Applying evidence to your everyday practice." In *Evidence-Based Practice for Information Professionals: a handbook*. Edited by Andrew Booth and Anne Brice. London: Facet Publishing.
- McKkibon, K. Ann. 1998. "Evidence-based

- practice."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86(3): 396-401.
- Mullen, Edward J. and David L. Streiner. 2006. "The evidence for and against evidence-based practice." In *Foundation of Evidence-Based Social Work Practice*. Edited by Albert R. Roberts and Kenneth R. Yeag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ye, Chad, Herb Turner, and Jamie Schwartz. 2006. *Approaches to Parent Involvement for Improving the Academic Performance of Elementary School Age Children*. [cited on 2009.1.25].  
<[http://www.campbellcollaboration.org/review\\_list/index.php?page=1](http://www.campbellcollaboration.org/review_list/index.php?page=1)>.
- Pickard, Alison Jane. 2007. *Research Methods in Information*. London: Facet Publishing.
- Powell, Ronald R. and Lynn Silipigni Connaway. 2004. *Basic Research Methods for Librarians*. Westport: Libraries Unlimited.
- Powell, Ronald R., Lynda M. Baker, and Joseph J. Mika. 2002.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actitioners and research."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4: 49-72.
- Roberts, Albert R., Kenneth Yeager, and Cheryl Regehr. 2006. "Bridging Evidence-Based Health Care and social work: how to search for, develop, and use evidence-based studies." In *Foundation of Evidence-Based Social Work Practice*. Edited by Albert R. Roberts and Kenneth R. Yeag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http://www.bartleby.com/61/48/E0254800.html>>.
- The Campbell Collaboration.  
<<http://www.campbellcollaboration.org>>.
- The Cochrane Collaboration.  
<<http://www.cochrane.org>>.
- The Compact Oxford English Dictionary.  
<<http://www.askoxford.com/dictionaries/?view=uk>>.